

새 역사 쓴 T1...세계 최초 '연속 우승' 2회 기록

# “대상혁이 또...” T1, 롤드컵 5번째 우승 달성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에서 중국의 빌리빌리 게이밍을 물리치고 통산 다섯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T1 선수들.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빌리빌리 게이밍 3 대 2로 꺾어 중국 팀 상대 5전제 승부 10연승 박진감 넘치는 대역전극 팬 환호 베테랑 이상혁, 결승 MVP로 선정

T1이 통산 다섯 번째 '롤드컵' 우승을 품었다. 팀의 전신인 SK텔레콤 T1이 처음 우승했던 2013년부터 함께해온 '페이커' 이상혁도 같은 기록을 쓰며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

T1은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동남부에 위치한 O2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에서 중국(LPL)의 빌리빌리 게이밍을 세트스코어 3 대 2로 꺾고 '소환사의 컵'을 들어올렸다.

●MVP는 '페이커'  
디펜딩 챔피언 T1은 LPL 1번 시드 빌리

빌리 게이밍을 상대로 물고 물리는 접전을 펼쳤다. 특히 대부분의 경기를 불리하게 시작했지만, 이를 이겨내고 대역전극을 만들어 보는 재미를 더했다.

T1은 현재 주전 라인업을 완성한 뒤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롤드컵 결승에 올랐다. 2022년 DRX에 패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또 올해 우승으로 2015년과 2016년 롤드컵 사상 최초 연속 우승을 달성한 데 이어, 또 한번의 연속 우승을 이뤄낸 세계 최초의 팀으로 이름을 올렸다.

T1은 롤드컵 5전제 승부에서 LPL 팀을 만날 때마다 승리를 따낸 기분 좋은 기록도 이어가게 됐다. SK텔레콤 T1 시절 처음 출전한 롤드컵에서 로얄 클럽을 상대하며 LPL 팀과의 첫 5전제를 치른 T1은 이번 결승까지 5전제 경기에서 중국 팀에 10연승을 이어갔다.

T1과 함께 대기록을 쌓아온 팀의 간판

이상혁도 통산 5번째 롤드컵 우승을 달성했다. 특히 4세트와 5세트에서 베테랑다운 면모를 과시해 결승 MVP로도 선정됐다. 이상혁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수명이 길지 않은 직업이다. 매 순간 감사하면서 하려고 한다”면서 “팬들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만4500명 팬 열광  
롤드컵은 LoL e스포츠의 최상위 대회인만큼 매년 경기 관람 티켓이 조기 매진되고, 압도 판매까지 이뤄질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날 경기장에도 1만4500명의 전 세계 팬들이 운집했다. U2나 비은세, 방탄소년단 등 아티스트 공연이나 프로농구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졌던 O2 아레나는 e스포츠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애니메이션 '아케인 시즌2' 사운드트랙 수록곡을 부른 아시니코의 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에 팬들은 열광했

다. 이어 린킨 파크가 롤드컵 주제곡 '헤비 이즈 더 크라운'을 부르고, 양 팀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경기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함성은 T1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됐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온 네이팜 가레이트(21)는 “하루 전 런던에 도착했으며 2020년부터 LoL을 시작해 페이커 선수와 T1을 응원하고 있다”며 “LCK 경기도 되도록 빼놓지 않고 보고 있다.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흥분된다”고 말했다.

영국 플리머스 출신 킴 소머스(29)는 “2013년부터 게임과 LoL e스포츠를 즐겨왔고, 개인적으로 프나틱 팬이지만 런던에서 롤드컵 결승이 열리는 것을 놓칠 순 없었다”면서 “6시간 대기 끝에 운 좋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고,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어 매우 흥분된다. 페이커 선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런던(영국) |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LCK', 단일 시즌제로 개편 “단 한 팀만 챔피언 오른다”

국제 대회 3개로 늘어...지역 리그도 변화

'리그 오브 레전드'(LoL·사진) e스포츠가 내년부터 확 바뀐다. 새로운 국제 대회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고, 한국 리그(LCK)도 단일 시즌제로 개편된다. 라이엇게임즈는 이같은 리그 개편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먼저 LoL e스포츠 국제 대회가 3개로 늘어난다. 1일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린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 미디어데이에서 크리스 그릴리 LoL e스포츠 글로벌 총괄은 2025년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대회 이름이 '퍼스트 스탠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5개 지역 스플릿 우승팀들이 출전하는 대회다. 스플릿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롤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번째 국제 대회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은 스플릿2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부터 캐나다에서 열린다. MSI에는 5개 지역에서 선발된 10개 팀이 참가한다. 내년 롤드컵 결승은 중국 청두에서 열린다.

2025년 새 시즌을 앞두고 지역 리그 구조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 PCS(아시아태평양), VCS(베트남)가 합쳐진 'LoL 챔피언십 퍼시픽'(LCP)과 LCS(북미), CBLOL(브라질), LLA(라틴 아메리카)가 합쳐진 'LoL 챔피언십 오브 더 아메리카스'(LTA)가 새롭게 출범한다. 두 리그가 지역 내 경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 게 라이엇게임즈 측 설명이다.

LCK도 기존과는 달린 방식을 도입한다. 스프링과 서머 두 스플릿으로 구분돼 각각의 챔피언을 뽑았던 기존과 달리 2025년부터는 5라운드로 구성된 단일 시즌을 통해 단 한 팀만 LCK 시즌 챔피언으로 등극한다. MSI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정규 시즌 1, 2라운드가 열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3, 4, 5라운드가 진행된다. 별도로 열었던 롤드컵 선발전은 사라지고 시즌 플레이오프 최종 순위에 따라 롤드컵 출전권이 주어진다.

공식 시즌에 앞서 LCK의 시작을 알리는 'LCK 컵'(가칭)도 생긴다. 퍼스트 스탠드에 출전하는 팀을 선발하는 대회다.

런던(영국) |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donga.com

## “LoL 위기?...소통과 투자로 변화할 것”

존 니덤 사장 “LoL 여전히 인기” 국가대전, IOC와 적극 논의 중



존 니덤 사장

하며 변화하겠다”는 그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LoL이 최근 한국에서 유저 수나 신규 이용자 등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다.

“LoL은 여전히 게임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인기 많다. 라이엇게임즈는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수들의 고령화와 세대교체는.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베테랑 선수 풀이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물론 젊은 플레이어를 끌어당기기 위해 계속 변화하고 투자할 것이다.”

-e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은. “e스포츠라는 팀을 구성하는 적절한 밸런스 자산의 사이즈같은 것을 최대한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BM) 측면에서 디지털 수익을 팀에게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있다.”

-IOC와 e스포츠 올림픽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

“올해 LoL은 EWC(e스포츠 월드컵)에 참가했고 좋은 성과를 냈다. LoL 팬들도 국가 대항전 콘셉트의 대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왔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IOC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스포츠가 게임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 “라이엇게임즈는 게임 주변 경험을 중요시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e스포츠와 음악, 애니메이션도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팬덤을 만들고 팬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스포츠도 이런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런던(영국) |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4일 (월) 음력: 10월 4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 구  | 행운색:청색<br>길방:동   | 소  | 행운색:흰색<br>길방:서   | 호랑이  | 행운색:검정<br>길방:북  | 토끼 | 행운색:검정<br>길방:북 | 용 | 행운색:적색<br>길방:남 | 뱀 | 행운색:청색<br>길방:동 |
|--|--|--|--|--|---|----|----------------|---|----------------|---|----------------|
|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어떤 일든 스스로 움직여야 이루어진다.    | 무슨 일에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매사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말실수를 조심해야하는 날이다.  |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을 할 수가 없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에 임한다면 크게 길할 것이다. 매사에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 자신감이 충만한 날이지만 위험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자중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학업,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게 갖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    |                |   |                |   |                |
| 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신중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자제하라. | 민중안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운산을 초목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람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재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아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려 생각하라. |    |                |   |                |   |                |

| 오늘의 날씨   |          |          | 4일 (월)   |          |                  |
|----------|----------|----------|----------|----------|------------------|
| 서울 60/10 | 인천 60/10 | 춘천 70/0  | 강릉 30/0  | 대전 60/60 | 전주 60/60         |
| 15<br>17 | 16<br>17 | 14<br>17 | 16<br>21 | 12<br>19 | 13<br>20         |
| 광주 60/60 | 대구 20/20 | 부산 0/20  | 창원 0/20  | 제주 20/60 |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
| 12<br>20 | 10<br>20 | 13<br>22 | 11<br>22 | 16<br>22 | 최저<br>최고기온°C     |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443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허민년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